



순교자의 소리

The Voice of the Martyrs

2019.7



“살인보다 더 위험한” _ p.3

“핍박받은 어머니 무죄를 확정받다” _ p.7

폴리 부부가 전하는 글



제가 북한과 기독교의 관계에 대해 말하면, 기독교인들은 보통 “북한에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오래 전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해는 있지만, 그런 분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북한에 기독교인이 이미 10만명으로 추산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독교가 단순히 북한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독교는 누룩처럼, 북한이라는 빵 덩어리에 계속 변화를 일으켜 왔습니다. 북한이라는 빵 덩어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북한의 기독교입니다. 이는 기독교가 한국인들 사이에 처음 뿌리를 내린 곳이 오늘의 북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평양은 기독교가 가장 극적으로 뿌리를 내린 곳이었습니다. 기독교가 북한 땅에 도착한 지 130년이 넘는데, 북한 주민 가운데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독교 신앙을 실천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대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기독교 활동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인류 역사에서 복음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그 나라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며 제자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 지하 기독교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는 일은 ‘오늘’ 그들과 굳건한 협력 관계를 이루어서 하는 것이지, ‘장차’ 개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한 북한 선교사 홍 자매를 함께 기억합시다.

많은 북한 여성과 마찬가지로 홍 자매도 중국에 성매매로 팔려갔다. 홍 자매를 산 중국 남자는 무신론자였지만, 탈북 여성들 브로커에게 산 다른 중국 남자들과 달리, 홍 자매가 교회에 가는 것을 허락했다. 심지어 홍 자매의 남편은 교인들을 집으로 초청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가정 형편은 비참했고, 홍 자매는 중국을 떠나 한국으로 갈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예배드리는 중에 무신론자인 홍 자매의 남편이 시를 한 편 썼다. “매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 우리는 그분을 믿으며, 그분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 그 순간 홍 자매는 울며 회개했다. 홍 자매는 하나님의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을 새삼 깨달았다. 쉽지 않았지만 홍 자매는 남편을 떠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양육에 힘쳤다. 그러던 중, 홍 자매는 안타깝게 폐암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치유되었고, 마침내 남편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받았다.

그런데 암이 재발하고 말았다. 하지만 홍 자매와 남편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한 기독교인으로 성장했다. 매일 함께 성경을 읽었다. 병세가 악화되자 같은 처지의 탈북 여성들이 홍 자매를 찾아왔는데, 홍 자매는 그들에게 병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대신 주님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최근 홍 자매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다.

홍 자매는 자신이 중국에 성매매로 팔려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열매로 나무를 판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홍 자매는 단순히 성매매로 팔려온 여성 이 아니었다. 중국에 성매매로 팔려 온 북한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택한 선교사였던 것이다.

홍 자매는 “남편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남편이 지혜롭게 가정을 잘 꾸려가도록 기도해주세요”라고 말했다. 그 제목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홍 자매를 기억하자.

홍 자매와 같이 성매매로 팔린 북한 여성들을 돋기 원하신다면, 아래 웹사이트를 방문해주세요.

<https://vomkorea.com/project/northkorea/womens-discipleship/>





살인보다 더 위험한

박 씨는 11년 가까이 매일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중국과 북한 국경을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주로 중국으로 도망 치거나 밀수를 하는 북한 주민을 감시했다. 불법 행위자를 체포하는 것이 임무인 박 씨는 자신도 불법 행위를 하는 것에 죄책감이 들었지만, 국경 경비대원으로서의 자부심도 있었다. 많은 북한 주민처럼, 그도 순전히 생존을 위해 불법 밀수에 의존했다.

다른 국경 경비대원이 박 씨의 밀수 조직을 신고했을 때, 박 씨는 두 달 동안 감옥에 갇혀 고문을 당했다. 가장 위험한 물품인 성경을 북한에 밀반입한 것도 아닌데 말이다. “북한에 성경을 들여오는 건 살인보다 더 악독한 죄예요.” 박 씨는 말했다. 감옥에서 고통스럽게 형벌을 받았지만, 박 씨는 풀려나자마자 다시 밀수에 손을 댔다. 먹고 살자니 어쩔 수가 없었다.

어느 날, 박 씨는 북한으로 DVD를 몰래 들여오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일을 하는 한 여성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그 여성의 DVD가 들어있는 상자 30개를 가지고 초소로 오자, 박 씨는 무작위로 상자를 열어 물건을 감시하는 시늉을 했다. 하지만 그가 연 상자에는 DVD 외에 성경 여섯 권이 들어 있었다.

갑자기 박 씨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성경을 본 적은 없었지만, 성경이 김씨 일가를 승배하고 주체사상을 전복시키는 불온 문서라고 배웠기 때문이다. 어떻게 할지 고민하던 그는 마침내 성경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는 “우린 오늘 아무것도 못 본 겁니다”라고 친구에게 말했다. “죽을 때까지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국경 경비대원은 성경을 압수하면 엄격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 성경을 펴서도 안 될 뿐 아니라 상관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보고한 뒤에도 열흘에 걸쳐 심문을 받는다. 또한 다른 경비대원이 성경을 목격하고, 박 씨가 반입을 허가했다고 신고하는 경우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박 씨 본인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성경을 원수로 여겨요.” 박 씨는 북한 국경 경비대에 관해 말했다. “언제나 피해야 하는 물품이죠. 나는 ‘주체사상’을 믿었기 때문에 단 하루도 성경을 펴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군 복무를 끝낸 박 씨는 조국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결국 2017

년 11월, 한국에 왔다. 3개월간 입국 심문을 받을 당시, 그는 자신을 상담하는 기독교인에게 “나는 신이 없다고 믿어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정원에서 나온 뒤에 탈북민 정착센터인 하나원에 들어갔을 때, 그는 기독교에 관해 더 배우기 위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전에 성경을 준비하는 봉사를 했다. 빈자리에 성경을 놓던 그는 손에 들고 있는 그 책이, 북한이었다면 자신을 죽음에 몰아넣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정말 기뻤어요. 성경을 준비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어요.”

하나원 생활 3개월 동안, 그는 새벽 기도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교회와 성경 말씀에 대한 그의 사랑이 계속 자라, 마침내 그는 ‘주체’라는 종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길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디서든지 주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새겼습니다. 다른 책처럼 그냥 읽지 않았습니다.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또한 박 씨는 하나원에서 순교자의 소리 사역자를 만났다. 지금 박 씨는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면서 순교자의 소리의 도움을 받고 있다. 박 씨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북한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뿐 아니라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에 적응해 가는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부탁한다. 사고방식도 완전히 다르고 소통하는 방식도 완전히 다른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우울증과 맞서 싸우는 탈북민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마주한 박 씨는 지금, 북한에서는 전혀 가져보지 못한 소망을 품고 있다. 이전에 그토록 두려워했지만 자신을 새 인생으로 인도한 성경의 중심 주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찾은 것이다.



성경을 읽고 있는 한족 남성(중국)



순교자의 소리

The Voice of the Martyrs

[김교신홈] 서울시 성북구 정릉로 17길 15
 [사무실] 서울시 성북구 솔샘로 26 지층
 후원계좌: 국민은행 463501-01-243303 || 예금주: (사)순교자의소리
www.vomkorea.com || 02-2065-0703



한국 기독교 재정투명성협회
 1호 인증



facebook.com/VOMKorea



twitter.com/VOMKorea



youtube.com/c/voiceofthemartyrs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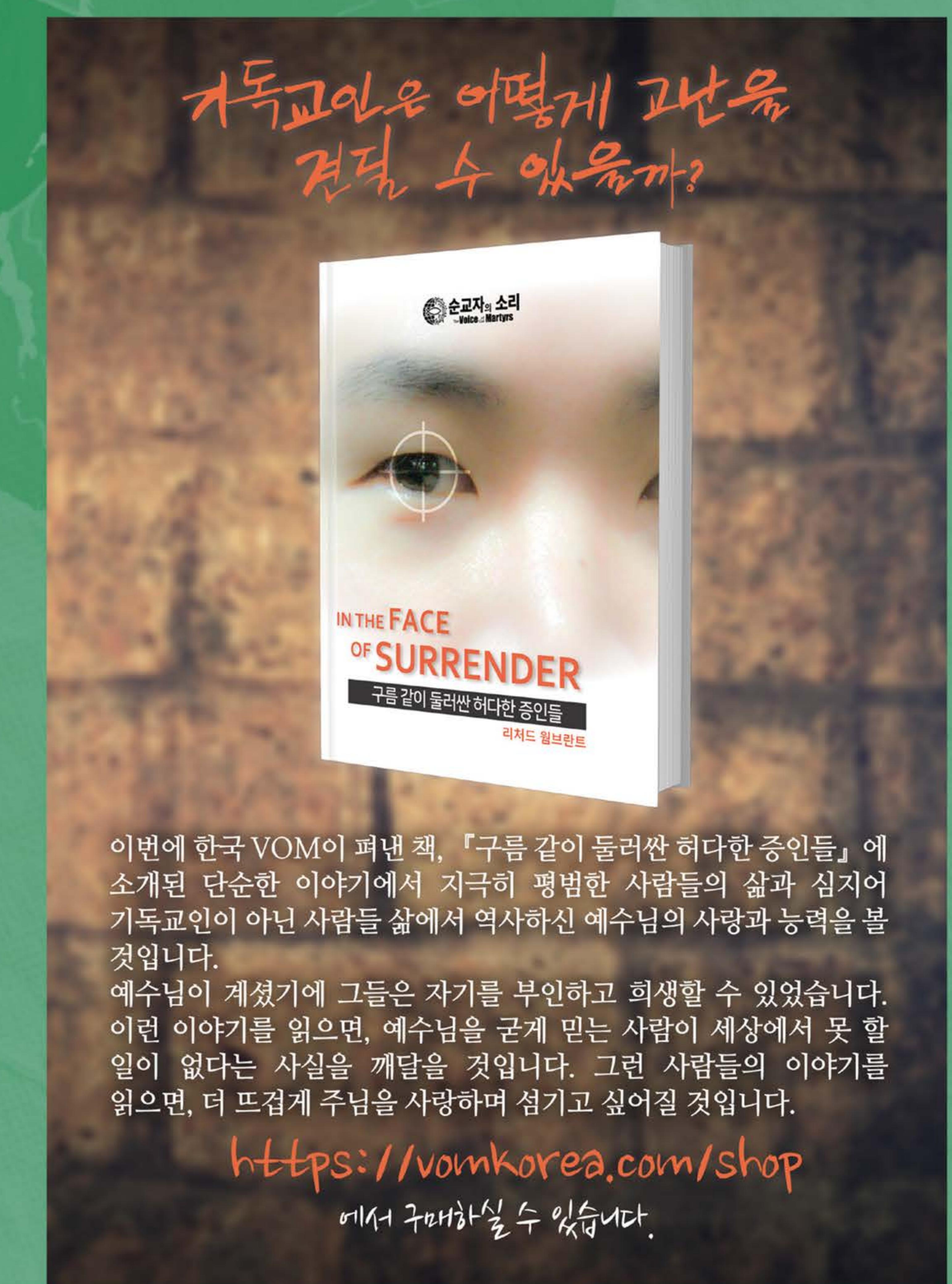
2019년 7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1 ■ 모로코 비밀경찰에 체포된 기독교 인들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2 ■ 시리아 전쟁 중인데도 하나님 나라 를 확장하기 위해 시리아에 남기로 결단한 기독교인들 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3 ■ 모리타니 비밀리에 예배하는 기독교 인들이 다른 기독교인들과 유대감을 갖도록 기도해주세요.	4 ■ 필리핀 기독교 사역자들을 새롭게 키워내는 시골 지역 성경학 교들이 무슬림에게 공격당 하지 않도록 기도해주세요.	5 ■ 레바논 기독교인들이 살해된 지역 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자가 안전하도록 기도해주세요.	6 ■ 아라비아 반도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 게 기도해주세요.” – 최전방 사역자	7 ■ 이집트 정부가 기독교인에게 무슬 림과 똑같은 권리를 부여하 도록 기도해주세요.
8 ■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기독교인들이 위협과 시련에 굽하지 않고 복음을 널리 전파하도록 기 도해주세요.	9 ■ 터크메니스탄 기독교 탄압이 극심한 이 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이 담 대하게 증인의 사명을 감당 하도록 기도해주세요.	10 ■ 미얀마 분쟁 지역 근처에 사는 신 자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적대적인 이웃들이 분쟁을 핑계로 기독교인들을 공격 합니다.	11 ■ 멕시코 치아파스 산악 지대에서 목 회자와 선교사 훈련을 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12 ■ 이란 핍박받는 이란 기독교인들 이 더욱 담대하고 용기를 내도록 기도해주세요.	13 ■ 라오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 률을 정부가 존중하도록 기 도해주세요.	14 ■ 사우디아라비아 기독교를 믿고자 하는 사람 과 은밀하게 믿는 사람들이 성숙한 기독교인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15 ■ 인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억지 로 이사해야 하는 가정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16 ■ 말리 북부 지방이 안정을 찾고 추방된 기독교인들이 돌아 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17 ■ 우간다 믿음 때문에 남편에게 버림 받은 기독교인 여성들을 위 해 기도해주세요.	18 ■ 중국 존 차오, 장 샤오지에, 차오 웨일랑, 알림주지양 이미티 같은 기독교인 죄수들을 위 해 기도해주세요.	19 ■ 예멘 국내외 예멘인들에게 복음 을 전하는 기독교 사역자들 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20 ■ 소말리아 공식적이고 가시적인 교회 가 소말리아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21 ■ 나이지리아 개인 성경이 없는 북동부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22 ■ 이라크 “우리의 원수들을 위해 기 도해주세요.” – 최전선 사역자	23 ■ 에티오피아 신자들의 복음 전파 권리를 정부가 지켜주도록 기도해 주세요.	24 ■ 알제리 알제리 교회 지도자들이 화 합하도록 기도해주세요.	25 ■ 태지키스탄 어린이 사역과 문서 배포 사역을 보호해주시도록 기 도해주세요.	26 ■ 쿠바(공산주의) 쿠바에서 피델 카스트로가 1953년에 일으킨 무신론 공산주의 혁명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60년이 넘는 공 산주의의 지배가 끝나도록 기도해주세요.	27 ■ 수단 말씀을 읽지 못하는 주민들 에게 배포한 오디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시 도록 기도해주세요.	28 ■ 라오스 라오스 종교법이 기독교인 들의 모임을 금하지 않도록 기도해주세요.
29 ■ 시리아 극단주의자들이 예수 그리 스도의 진리를 볼 수 있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도 록 기도해주세요.	30 ■ 카타르 믿음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 로 핍박당하는 신자들을 위 해 기도해주세요.	31 ■ 터키 대통령의 마음을 녹이시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시 도록 기도해주세요.				

영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으로 14년 감옥 생활을 한 목사의 실화
TORTURED
 for **CHRIST**

여러분 교회에서 이 영화를 보시려면
 한국 VOM에 연락해주세요

영화 상영 문의 02-2065-0703
 순교자의 소리 www.vomkorea.com
 주소 서울시 성북구 솔샘로 26 (지층)

순교자의 소리
 The Voice of the Martyrs



최근 세계 소식



스리랑카

한 스리랑카 기독교인이 집에서 성경 공부를 했다는 이유로 이웃과 대립한 뒤에 폭행 혐의를 받았다. 2019년 1월 26일, 마을 주민 6명은 가정 성경 공부를 중단하지 않으면 해치겠다고 이 기독교인을 협박했다. 나흘 뒤, 한 친구가 그에게 전화를 했다. 그를 때리려 가는 주민들을 그 친구가 가로막았고, 그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와중에 주민 한 사람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는 말이었다. 주민들의 구타 미수 사건에 대해 기독교인이 경찰에 신고하자, 오히려 경찰은 이 기독교인의 친구를 바로 체포했고, 다친 주민의 진술을 토대로 그를 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스리랑카 기독교인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하지만 불교 인구 70%가 넘는 나라에서 기독교인은 소수에 불과하다. 정부와 사회는 기독교인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면서 눈에 띄지 않게 핵박한다. 일례로, 학생들은 종교 수업을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데, 학교는 오로지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강좌만 개설한다.



우간다

세실리아Cecilia가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자 남편은 그녀를 버렸다. 순교자의 소리 우간다 사역자가 세실리아와 일곱 자녀를 만났을 때, 그들은 서서히 굶어 죽어가고 있었다.

순교자의 소리에서 1년간 지원을 받은 세실리아와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다. 17세 아들은 직업학교에 다니면서 금속 제작을 배운다. 어린 동생들도 다시 학교를 다니고 있고, 아이들 중 몇 명은 돈이 없어 뒤처졌던 학업을 만회하는 중이다. 순교자의 소리 사역자는 여덟 식구가 모두 영양을 잘 섭취해 전보다 건강해 보인다고 전했다.

우간다 사람은 대부분 기독교를 믿지만, 세실리아가 사는 북쪽에서는 무슬림의 영향력이 강하다. 하지만 기독교 인으로서 잘 살아가는 세실리아를 보았을 때, 무슬림들은 주님이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세실리아가 출석하는 교회의 목사는 많은 사람이 그녀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을 계속 신실하게 섬길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세실리아는 지금 이렇게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그녀를 절대 버리지 않은 주님 덕분이라고 말한다. 이제껏 고단한 삶을 살았지만 주님이 없었다면 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세실리아는 믿는다.

“시련은 사라지지 않아요.” 세실리아는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무엇을 주시든지 매일 감사드려요. 또한 계속 기도해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여러분께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케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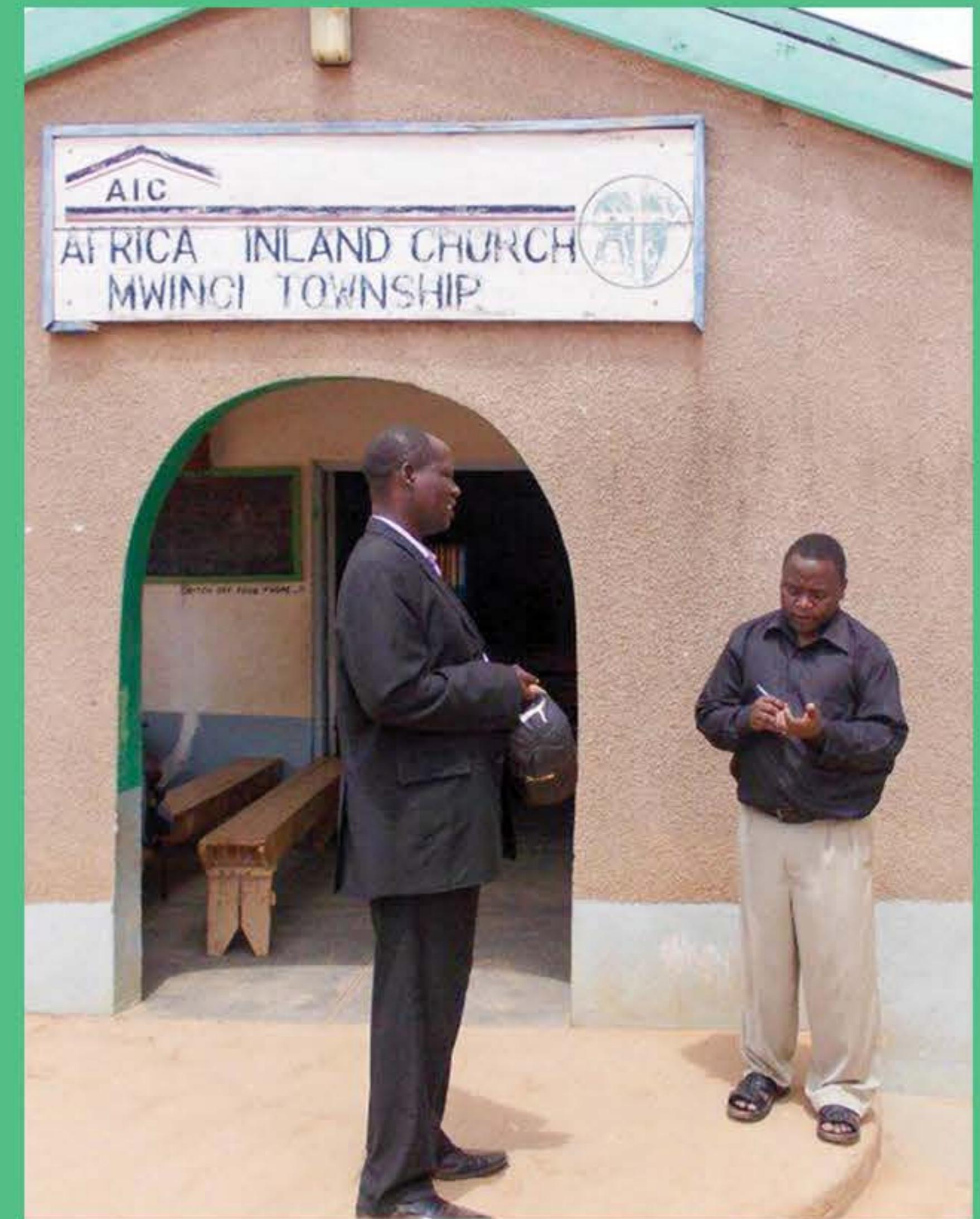
케냐 동부 시골 마을의 한 목사는 협박과 사회적 따돌림, 교회를 폭파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40여 명의 성도를 계속 섬기고 있다. 2007년에 문을 연 마차리아Macharia 목사의 교회는 현재 에티오피아와 케냐 전역에 퍼져 있는 에티오피아 출신 부족을 섬기는 유일한 복음주의 교회이다. 마차리아의 교회 성도들은 가족들에게 배신자로 찍혀 결혼식이나과 장례식과 같은 가족 행사에도 참석하지 못한다.

마차리아 목사가 신학교에서 성경과 신학 분야 학위를 받자, 학교 당국자들은 케냐 동부에 들어박혀 특출한 능력을 낭비하는 것을 만류하면서 그를 모교인 신학교 교수로 초빙했다. 하지만 마차리아는 이를 거절하며 말했다.

“감사합니다만 케냐 동부에는 제가 필요합니다.”

2018년 어느 날 아침 예배 직전, 마차리아 목사는 창문을 뚫고 들어온 전선을 발견했다. 케냐 경찰은 폭탄을 해체하고 교회는 다음날 모임을 재개했다. 폭탄 설치 시도 이후, 1년 동안 위협은 더 늘어났지만 마차리아 목사는 여전히 사역에 전념하고 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계속 사역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순교자의 소리 사역자가 문자 그는 대답했다. “내가 섬기는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설교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콜롬비아

콜롬비아 순교자의 소리 사역자들은 2016년 체결된 게릴라와 정부의 평화 협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협정이 체결된 뒤에도 폭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평화 협정을 맺었는데도, 게릴라들은 다시 폭력을 쓰고 있습니다.”

게릴라나 불법 무장단체가 통제하는 ‘적색 지역’에는 교회를 인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헌신적인 사역자들이 많이 남아 있었지만, 현재는 대부분 살던 곳에서 쫓겨났고 예배는 금지 당했다. 심지어 살해된 사역자들도 있다. 많은 게릴라들은 목사들을 장기판의 말 정도로 여기며 정부를 상대로 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용한다.

순교자의 소리는 개인적인 위험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지상대명령을 수행하고자 애쓰는 이 지역 성도들을 지원한다.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짓고, 목회자들이 작은 회사를 세워 사역비를 충당하도록 돋는다. 또한 기독교인 가족들이 폭력을 피할 수 있도록 안전 가옥을 제공하며 격려한다.



www.yomkorea.com에서도 이 소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1969



2019

50년 동안 동역해 온 북한 지하교회

한국 VOM과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한국 VOM의 협력 단체들은 북한 지하교회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 1969년부터 북한 주민들과 함께 일해왔다.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북한 기독교인들에게 물었다. “무엇이 필요하신가요?” 그러자 그들은 대답했다. 그 내용은 몇 가지로 요약된다.



양육지

한국 VOM은 북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국가의 기독교 인들과 협력하여 일한다. 이들 국가의 기독교인들은 북한 사람들이 더욱 안전하게 복음을 배우고, 말씀을 암송하고, 믿음을 키워나가도록 양육지를 운영한다. 양육지에서 공부한 북한 주민은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 암송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한다.



성경

한국VOM은 1969년부터 풍선으로 북한에 성경을 보내왔다. 시간이 흐르면서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개발했다. 또한 북한에서 가져온 성경 번역본, 『조선어성경』으로 풍선 사역을 위한 성경을 제작했다. 북한과 남한의 방언을 토대로 제작된 이 성경은 탈북민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성경으로 평가받았다.



라디오

한국 VOM은 북한 지하교회의 요청으로, 이미 1972년에 라디오 방송을 시작했다. 방송은 성경 낭독, 제자 양육을 위한 오디오북, 설교, 박해받는 전 세계 기독교인을 격려하는 내용을 다룬다. 방송 내용 대부분은 자원봉사자들이 녹음한다.

(<https://vomkorea.com/get-involved/> 참조)



사역 보따리

북한 지하교인에게 성경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굶주림과 질병 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다. 따라서 우리가 이들의 필요를 제공해야 한다.

북한 지하교회 사역을 지원하기 원하시는 분은 한국 VOM 사이트를 방문해주세요.
<https://vomkorea.com/donation/>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